



축구와 한국을 사랑하는 프랑스 청년 파비앙

3개월이 6개월, 6개월이 또 9년이 됐다. 프랑스 모델 출신의 방송인 파비앙(30)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다. 3개월의 여행을 통해 한국의 젊음과 활기에 매료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한국을 찾았다.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6개월을 계획했지만,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둘씩 하다보니 어느덧 인생의 3분의 1을 한국에서 지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즐겁다. 파비앙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책을 쓰고, 음악을 듣고, 방송까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열심히 재미있게 잘 살고 있다”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며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는 그의 삶에는 요즘 전 세계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옴로(YOLO·You only live once·인생은 한 번 뿐이다)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태권도로 알게 된 한국...케이팝·한식에 매료 글쓰기 관심 많아 프랑스서 축구 기자 생활도 한국어 책 집필 꿈...요즘 로맨스 소설에 꽂혀 파리생제르맹 열혈팬...한국 서포터즈 창단도

▶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은 축구를 매개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나가고 있다. 파리생제르맹FC의 오랜 팬인 파비앙이 직접 챙겨온 유니폼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김충원 기자 won@donga.com

“알레 파리생제르맹 ~ 축구로 하나되는 사람들”



●나의 모태 스포츠 ‘축구’

축구를 사랑하는 프랑스 출신답게 파비앙의 모태 스포츠는 축구다. 그의 일상엔 언제나 축구가 함께 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축구 선수 카드를 교환하며 놀았고, 학교에선 쉬는 시간마다 축구를 했다.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빼놓지 않고 모두 챙겨봤다. 파리에 거주하는 그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버지와 함께 파리생제르맹FC의 홈경기도 거르지 않고 찾아가 응원했다. 파비앙은 “한국이 야구라면 프랑스는 압도적으로 축구가 1등이다. 프랑스에선 축구 문화가 활성화 되어있고, 직접 축구를 하는 사람도 정말 많다”며 “어떤 계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축구를 좋아하게 됐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축구에 대한 그의 열정을 설명하려면 입이 아플 정도다. 대학생 때는 프랑스 축구전문매체 ‘막시퐁’에서 기자로 짧게 활동한 이력도 있다. 파리생제르맹의 오랜 팬인 파비앙은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축구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남기곤 했는데, 어느 날 그의 글을 관심 있게 지켜본 ‘막시퐁’에서 연락이 왔다. 파비앙은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다. 6개월 정도 기사를 썼다. 당시 학생인데도 모델, 연극 활동까지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오래 하지는 못했다. 정말 재미있었는데”라며 아쉬워했다.

파비앙은 한국에서도 축구를 통해 소중한 인연들을 맺어나가고 있다. 지난 4월엔 축구용품업체 포워드가 운영하는 축구팀 포워드FC에 가입했다. 매주 수요일 2시간씩 공을 차며 팀원들과 친목을 다지는데, 그는 단 한 번도 운동을 거르지 않았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 그의 동료들도 “파비앙은 몸을 사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주로 왼쪽 미드필더를 맡는 파비앙은 수비와 공격 모두 만능이다. 그는 “여렸을 때부터 축구를 오래 했으니 어느 정도 하기는 하지만, 선수를 할 실력은 아니다. 그냥 즐기는 수준”이라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한국을 사랑한 태권소년

파비앙은 대중들에게 태권도로 더욱 친숙하다. 한국과의 첫 인연 역시 태권도였다. 5세에 태권도를 시작한 파비앙은 프랑스 태권도 국가 대표 출신이다. 어린시절부터 태권도를 좋아했던 그는 자연스레 한국의 영화와 음악에도 빠져들었다.

그는 “처음에 접한 한국 영화는 모두 무술과

관련된 작품들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바람의 파이터’나 ‘돌려차기’ 등을 모두 영어 자막으로 봤다”며 “또 프랑스에 자주 오던 태권도 시범단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사용한 음악을 자주 듣다보니 1990년대 K-POP도 좋아하게 됐다”고 떠올렸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음식 등에도 관심이 많다. 지난해 10월에는 프랑스어로 ‘파비앙의 한식’이라는 요리책을 발간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그는 요즘 로맨스 소설을 쓰고 있다. 이미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파비앙은 “언젠가 한국어로 책을 쓰는 것이 꿈”이라며 독서와 글쓰기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내가 바라보는 한국에 대해 책을 써보고 싶다. 지금의 한국어 실력으로는 어렵겠지만, 2~3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었다.

파비앙은 한국의 역사 기념일에 SNS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숨김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지난 현충일에는 에펠탑 앞에서 태극기를 펼쳐두고 찍은 사진과 함께 순국선열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 화제를 모았다. “당장은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다”는 그는 새하얀 피부, 연갈색 눈동자를 지닌 프랑스 청년이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만큼은 여느 한국인 못지않다.

●PSG 좋아하세요?

파비앙은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국에 파리생제르맹을 알리는 일이다. 그는 지난 4월 파리생제르맹 국내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파리생제르맹 공식 서포터즈를 창단했다. 직접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파리생제르맹의 소식을 전하고, 팬들과 함께 파리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축구도 한다. 그는 “나랑 같은 팀을 좋아한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만나서 축구 이야기를 하고, 경기도 함께 본다. 정말 재미있다”고 기뻐했다.

파비앙은 축구를 매개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 축구가 갖는 ‘응집력’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축구 하나로 수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 그 힘은 정말 대단하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통해 느꼈다. 재력,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축구를 보며 응원할 수 있다는 것이 축구의 매력이자 힘이다.”

서대경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고정일 기자 ico@donga.com

레너드 부상 책임져라? 팬들 손배 청구 인정될까



Sports & Law Story

양종진 부장검사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고의 또는 과실·위법·손해 ‘손배 3요건’
파출리아 수비는 정당행위 해당 가능성
‘티켓 가치 하락’ 팬들 주장 인정 어려워

얼마 전 미국프로농구(NBA) 샌안토니오의 팬들은 골든스테이트의 자자 파출리아 선수와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언론에선 고소라고 표현했지만, 내용을 보면 형사적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7만3000달러(약 82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7전4선승제로 열린 2016~2017시즌 플레이오프 3라운드 1차전 3쿼터, 샌안토니오의 에이스인 카와이 레너드가 중거리 슛을 시도했다. 그러자 골든스테이트의 마크맨인 파출리아가 슛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들고 레너드 쪽으로 두 걸음쯤 다가갔다. 그런데 파출리아의 두 번째 스텝이 공교롭게도 레너드의 착지점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레너드는 파출리아의 발을 밟아 왼쪽 발목을 접

질렀다. 이전부터 발목이 좋지 않던 레너드는 결국 더 이상 뛸 수 없게 됐다. 경기 내내 20점 이상을 앞서고 있던 샌안토니오도 레너드의 부상 퇴장 이후 갑자기 흔들리며 패하고 말았다. 이에 분노한 샌안토니오 팬들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된 것이다. 원고(샌안토니오 팬들)측의 변호를 받은 변호인은 ‘파출리아의 행위로 샌안토니오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원고들이 구매한 시즌 티켓의 가치도 현저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선수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만약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면 판결은 어떻게 될까? 민사적 책임은 형벌이 아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형태로 지게 된다. 즉,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선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파출리아의 행위에 고의는 없고 과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민사적으로도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몸싸움이나 신체접촉이 있는 스포츠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힌 경

우라면 어떻게 될까?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혀 레너드가 선수생활을 마감했다거나 오랜 기간 출장이 불가능해 연봉이 떨어진 경우다. 이 때 레너드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파출리아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파출리아의 고의적 위법행위로 인해 레너드에게 연봉 감소라는 손해가 발생했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고, 얼마를 배상해줘야 하는지는 좀더 따져봐야 할 것이다.

●팬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레너드 본인이 아닌 팬들이 파출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먼저 팬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불명확해 보인다. 샌안토니오 팬들은 시즌 티켓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양 팀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해 최고의 경기를 보지 못함으로써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티켓 가격이 오르면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손해의 내용이 특별하다보니 원고(팬들)로서도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파출리아의 입장에선 그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



샌안토니오의 포워드 카와이 레너드(뒷줄 가운데)가 지난달 23일(한국시간) AT&T센터에서 벌어진 미국프로농구(NBA) 2016~2017시즌 서부 콘퍼런스 결승 4차전 골든스테이트와의 홈경기 중 파출리아의 발을 밟아 부상을 입었다. 샌안토니오 팬들은 이후 파출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샌안토니오(미 텍사스주) | AP뉴시스

렸다. 따라서 팬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렵다.

●구단도 같이 책임질까?

파출리아가 레너드에게 고의적으로 파울을 해서 부상을 입혔다면 원칙적으로 구단도 파출리아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코칭스태프나 구단 관계자가 평소 선수들에게

위험한 파울을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등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였다면 구단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프로선수는 운동을 직업으로 삼는다. 기본적으로 몸이 자신이고 생계의 수단이라는 뜻이다. 고의적으로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은 생계의 수단을 빼앗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동업자 정신이 중요한 이유다.